

연구논문

노년기 부부의 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종단적 변화 사이의 관련성: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Associations of Longitudinal Changes i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Couples:
An Application of the Dyadic Growth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가현^{a)} · 정성창^{b)} · 장승민^{c)}

Ka-Hyun Lee · Seong-Chang Jeong · Seungmin Jahng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는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형화하고, 부부관계 만족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하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LoSA)의 1차(2006)부터 5차(2014)까지의 종단 짝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부부'를 분석 단위로 하는 통계모형을 적용하였다.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변화 궤적에 대한 분석에는 이자성장모형(DGM)이 사용되었다. 이 변화 궤적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DG-APIM)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사 기간 동안의 부부관계 만족의 평균은 남편이 아내에 비해 더 높았지만 관계 만족의 감소율도 더 높았다. 또한 남편의 우울은 아내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낮았지만 시간에 따라 더 크게 증가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우울 평균 수준은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의 평균 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상대방 효과를 보였으며, 우울의 변화율의 크기는 자신의 관계 만족의 변화율의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사이에 종단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우울의

a)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b)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c)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장승민.

E-mail: jahngs@skku.edu

결혼 불화 모형이 종단적 변화에서도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노년기 부부, 부부관계만족도, 우울, 성장모형, 종단 짝 자료분석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elderly husbands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change over time and examined how changes in marital satisfaction account for changes in depression between and within the dyads. The longitudinal dyadic data from the first wave(2006) to the fifth wave(2014)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re used for the analyses. Because husbands and wives are interdependent within couples, we applied statistical models for dyadic data. The dyadic growth model(DGM) was used to model the trajectorie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order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these growth factors, we proposed the dyadic growth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DG-APIM) and applied the model to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on average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but decreased faster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than the wives'. It also showed that the average depression of the husbands was lower than that of the wives but the husbands' depression increased faster than the wives'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The variance of the averages of husbands' (wives's) depression was accounted for by that of wives'(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showing a partner effect. The variance of the slopes of husbands'(wives') depression was accounted for by that of marital satisfaction of themselves, showing an actor e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longitudinal interdependence between husbands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nd supported the marital discord model of depression.

Key words: elderly couple,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growth model, longitudinal dyadic data analysis

I. 서론

여성가족부(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여성 84세, 남성 77세이며,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12년 이상을 노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으로 인해 노년기 부부가 보내는 결혼생활의 기간도 과거에 비해 평균 20년 이상 늘었으며, 자녀의 독립과 맞물려 노인 부부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39%이며 2030년에는 54.2%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나 자녀의 독립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감소를 겪는 노년기에는 부부관계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부관계와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이들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정석·최형주 2011; 이주연·정혜정 2015).

그러나 노년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사별자, 은퇴자 등 부부관계보다는 노인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 부부관계와 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연구들 역시 주로 개인의 만족도와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부부를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도 주로 성별에 따른 차이나 배우자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 머물렀다(김정석·최형주 2011; 주수산나 외 2013). 그러나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부부관계와 관계 만족에 대한 남편이나 부인 각자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 내 경험의 상호관련성이나 다른 심리적 과정과 갖는 관계 등을 부부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부부관계 경험의 변화에 대해서도 각자의 개별적 변화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경험의 상호 변화나 다른 심리적 과정의 변화에 미치는 상호적인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편 노인 우울은 노년기 삶의 질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핵심적 요소로 이해된다(김봉균 외 2014; 이현주 외 2008). 세계보건기구(WHO 2014)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72개국 중 1위이고 우리나라의 자살한 노인 중 50~87%가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있었다는 보고(이현주 외 2008)를 감안하면 노년기 삶의 질에서 우울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노년기 우울은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인지기능 등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이미애 2011; 정은주·최기홍 2013; Murali & Oyebode 2004; Townsend et al. 2001). 특히 우울을 포함한 노년기의 정신건강은 결혼상태, 사회적 지지, 관계만족도를 포함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효정 외 2008; 박미진 2007; Beach 2001; Proulx et al. 2007). Beach et al.(1990)은 결혼생활에서의 불화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Brown et al. 1992; O'Leary et al. 1990; Whisman & Bruce 1999).

노년기 우울에 대한 연구는 연령의 증가 또는 노화에 따른 우울의 변화 양상에 관심을 가져 왔다(이주연·정혜정 2015; 이현주 2013; 전해숙·강상경 2009; Green & Benzeval 2011; Stordal et al. 2001). 이 연구들은 우울이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하며, 이 개인 내 변화의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개인차가 성별이나 건강상태,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련됨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부부관계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도 관계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이 변화에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보였다(박병선·배성우 2011; 주수산나 외 2013; Gorchoff et al. 2008; Homish & Leonard 2007).

그러나 노년기 우울의 변화와 부부관계 만족의 변화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내 연구 중에는 이주연·정혜정(2015)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부부관계 만족의 변화와 우울 변화의 종단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울과 부부관계 만족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여 부부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부 사이에 공유된 경험으로서 노년기의 관계만족의 변화 형태가 자신과 배우자의 우울의 변화 형태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갖는지를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에 입각하여 부부관계 만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는,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만족도의 변화가 자신의 우울과 배우자의 우울의 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이하 고령화패널)를 이용하여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종단적 변화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부 단위의 종단적 변화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노년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 짝 자료(longitudinal dyadic data)에 대하여 관계 만족과 우울 경험의 종단적 변화와 부부의 이자적 관계(dyadic relations)를 결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종단적 변화에 관한 모형인 잠재성장모형(Bollen & Curran 2006)을 부부와 같은 짝 자료(dyadic data)에 적용한 이자성장모형(Peugh et al. 2013)을 이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족도와 우울의 변화 형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성장요인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이 짝 자료의 종단적 변화의 상호의존성 모형에 의해서도 지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의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변화

부부 사이의 관계 만족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해당 시점에서의 선호적 태도’(Burr 1975) 또는 ‘해당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좋고 싫음과 같은 선호의 태도’(Roach et al. 1981) 등으로 정의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만족을 ‘배우자로 인해 경험하는 만족감, 기쁨 등의 주관적 감정’(정현숙 2001), 혹은 ‘부부라는 관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선호’(조혜선 2003) 등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부부관계 만족은 부부관계에 대한 특정 시점의 주관적 선호로서 시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부부관계 만족은 도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신체 및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음으로써 높아지며 높은 부부관계만족도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한다(Connidis 2010; Walker & Luszcz 2009). 특

히 은퇴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부부생활이 개인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의 만족이 정신건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정석·최형주 2011; 이주연·정혜정 2015; 주수산나 외 2013).

부부관계 만족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변화의 형태에 대해서는 상이한 주장이 존재한다. Duvall(1971)은 부부관계 만족은 가족발달주기에 따라 신혼초에 최고로 높다가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을 때까지 감소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이후 다시 높아져 U자 곡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이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Rollins & Cannon 1974; Lupri & Frideres 1981; Vaillant & Vaillant 1993).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부부관계만족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하며(Homish & Leonard 2007; Lavner & Bradbury 2010), 국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미령 2009; 박병선·배성우 2011; 이주연·정혜정 2015; 주수산나 외 2013).

한편 우울은 실망의 결과로 인한 삶에서의 슬픔, 낙담, 절망과 같은 기분(Radloff 1977), 또는 단순한 슬픔 및 울적함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 무력감까지의 광범위한 심리상태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이해된다(김성일·정용철 2001).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의 변화 형태에 대해서도 상이한 보고가 있어 왔다. 우선 노년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며(이현주 2013; Green & Benzeval 2011), 그 증가는 선형적이라는 보고가 있다(Stordal et al. 2001). 이러한 형태는 노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및 경제적 어려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실, 그리고 부정적 요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이현주 2013; Stordal et al. 2001).

이와는 반대로 노년기 우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김봉균 외 2014; 전해숙·강상경 2009; Blazer et al. 1991). 이러한 형태는 심리적 및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조절과 적응능력의 강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이주연·정혜정 2015),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우울증상을 노화의 한 증상이나 신체적 증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우울을 실제보다 과소 추정하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이현주 2013; Eaton et al. 2000). 1958년부터 30년 이상에 걸쳐 수행된 대규모 종단 패널 연구(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 BLSA)에서 수집된 2,320명의 우울증상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생애에 걸친 우울증상의 궤적은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다가 약 55세에서 60세를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하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보였다(Sutin et al. 2013). 이 결과는 노년기 우울의 증가 경향을 지지한다.

2.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종단적 관련성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결혼 및 부부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우울증상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고(Culp & Beach 1998), 부부관계 만족은 우울을 포함한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부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박영화·고재홍 2005). 결혼생활에 대한 개관 연구와 메타 연구도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Bradbury et al. 2000; Whisman 2001). 특히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관련성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Bookwala & Jacobs 2004). 국내 연구에서도 남녀 노인 모두에게 높은 결혼만족도는 우울증세를 억제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로 인한 우울증세를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인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미숙 2012).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는 우울증상의 경험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화를 유발한다는 스트레스 유발 모형(stress generation model, Davila et al. 1997)보다는 결혼생활에서의 불화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marital discord model of depression, Beach et al. 1990)이 더 지지되어 왔다. 결혼 불화 모형은 결혼생활에서의 불화가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가용한 자원을 제한하고,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적대감을 높인다고 본다. 이는 다시 부부 사이의 화합과 상호의존 및 친밀감은 낮추고 배우자에 대한 공격성과 비난은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상호 간에 우울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Proulx et al. 2007). 실제 우울 환자들은 결혼 불만족이 우울증상에 선행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O'Leary et al. 1990) 긍정적인 결혼생활은 우울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선시키기도 한다(Brown 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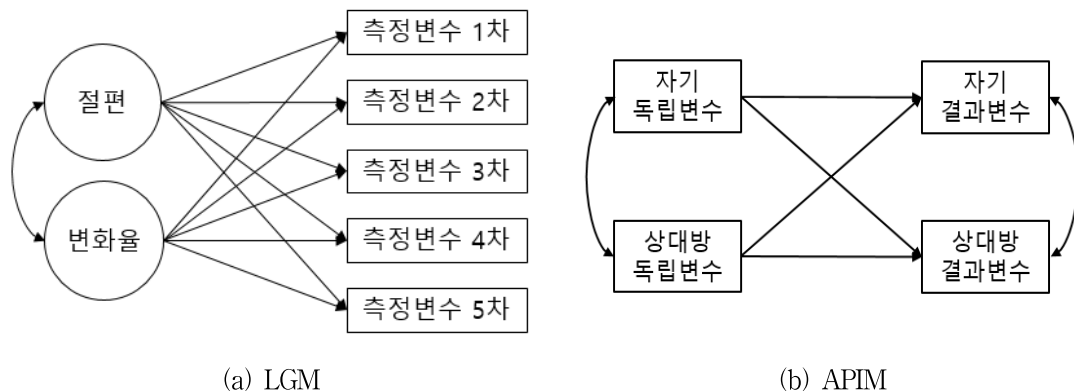
al. 1992). 이에 반해 개입을 통해 우울증상이 개선된 사람들은 이후 부부 사이의 불화가 완화되었음을 보이지 못했음이 보고되었다(Foley et al. 1989).

종단 연구들도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을 시사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900명 이상의 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불만을 보고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 년 안에 주요 우울 삽화가 발생할 위험성이 세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Whisman & Bruce 1999). 브라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산모의 출산 당시의 결혼만족도가 기저 우울증상이 통제된 2년 후의 우울증상을 예측하였다(Hollist et al. 2007).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간격의 결혼만족과 우울의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지연효과가 남편과 아내에게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특히 아내에게서 강한 효과가 나타났다(Fincham et al. 1997). 이에 반해 우울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지연효과는 남편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종단 연구들은 결혼생활 또는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남편과 아내 각자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가 자신의 우울증상 보고와 갖는 관련성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 불화 모형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우울은 자기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만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Beach et al.(2003)은 166 쌍의 백인과 흑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결혼만족과 우울 사이의 이차관계 상호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1년 후의 자신의 우울을 예측하는 동시에 배우자의 우울도 예측함을 보였다. 즉, 아내(남편)의 우울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남편(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같은 시점에 측정되거나 두 시점에 측정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과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수준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시점에 걸친 관계 만족의 변화에서의 개인차와 우울의 변화에서의 개인차가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종단적 변화를 모형화하기 위해 주로 성장 곡선의 개인차를 허용하는 다층성장모형

(multilevel growth model; 예, Green & Benzeval 2011; Sutin et al. 2013)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 예, 박병선·배성우 2011; 이주연·정혜정 2015; 이현주 2013)을 사용하여 왔다. 이 중 LGM[<그림 1>의 (a)]은 반복 측정된 관측변수의 변화를 성장요인(growth factors)을 이용하여 모형화한다. 선형 LGM의 경우는 변화 궤적을 절편요인과 기울기 요인으로 나타낸다. 전형적인 선형 LGM에서 절편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1로, 기울기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측정시점의 간격을 반영하여 0부터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설정(예, 0, 1, 2, ...)한다. 이러한 설정은 절편 요인을 변수의 초기값으로, 기울기 요인을 변화율로 해석할 수 있게 하며 이 요인들의 분산은 변화에서의 개인차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1〉 잠재성장모형(LGM)과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이주연·정혜정(2015)은 한국복지패널의 5차에서 8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관계 만족의 변화에서의 개인차와 우울의 변화에서의 개인차가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들은 부부관계 만족의 변화와 우울의 변화를 각각 선형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모형화한 후, 부부관계 만족의 성장요인들(초기값 요인과 변화율 요인)과 우울증상의 성장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둘 이상의 성장 곡선을 동시에 추정하여 이 성장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모형을 다변량 성장모형(multivariate growth model, Bollen & Curran 2006) 또는 평행 과정 성장모형(parallel process growth model, Preacher 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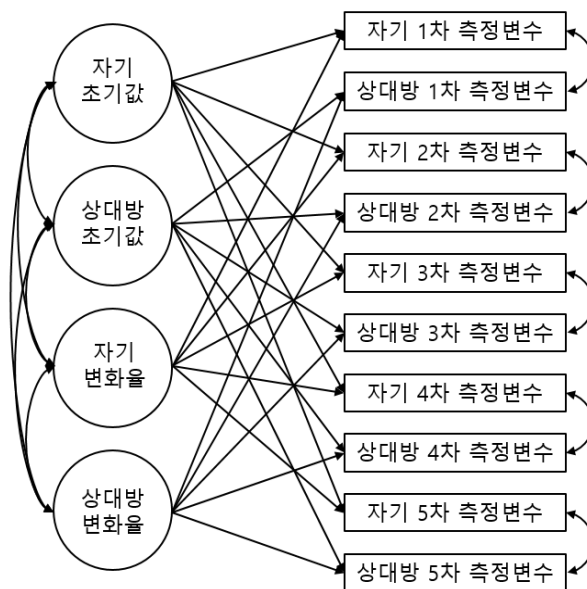
al. 2008)이라고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관계 만족의 초기값과 우울의 초기값이 강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관계 만족의 초기값을 통제했을 때에도 우울의 초기값이 관계 만족의 변화율을 설명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남편이나 아내의 자신의 관계 만족 변화 요인과 자신의 우울 변화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자기효과)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결혼 불화 모형의 설명을 따르면 남편이나 아내의 우울 변화는 관계 만족에서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관계 만족과 우울의 성장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성장요인과 아내의 성장요인들 사이의 이차적 상호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단 짝 자료의 분석모형

부부, 커플, 쌍둥이와 같이 서로 짝지어 쌍(dyad)을 이루는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집단 내의 개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발생하게 된다. 각 쌍에 속한 개인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Henry et al. 2007), 하나의 쌍에 속한 개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거나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 분석은 집단 내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당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지도 못한다(Kenny 1996). 따라서 서로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어온 노부부와 같이 짝을 이루는 쌍을 연구할 때에는 이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통제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짝 자료(dyadic data)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분석절차로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이 있다.

APIM은 한 모형 내에서 자기가 응답한 자료와 상대방이 응답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며 쌍에 속한 개인들을 측정된 변수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한다(Cook & Kenny 2005; Kenny 1996). APIM에서는 자기와 상대방의 결과변수 각각이 자기와 상대방의 독립변수에 의해 함께 영향을 받도록 설정되며 이를 통해 결과변수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한다[<그림 1>의 (b)]. 이 때 각 결과변수에 자신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효과는 자기효과(actor effect)로, 상대방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효과는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로 부른다. 부부의 경

우는 APIM을 통해 남편과 아내 각각의 결과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APIM에서는 각 독립변수가 자신과 상대방의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추정함으로써 변수들의 이자내(intra-dyad) 상관, 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모수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 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1종 오류나 제2종 오류의 증가를 피할 수 있다. 또한 APIM에서는 자기와 상대방의 독립변수 사이뿐 아니라 결과변수의 설명오차(disturbance) 사이에도 서로 상관이 설정되며, 이를 통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변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한다(Cook & Kenny 2005; Kenny et al. 2006).



〈그림 2〉 이자성장모형(D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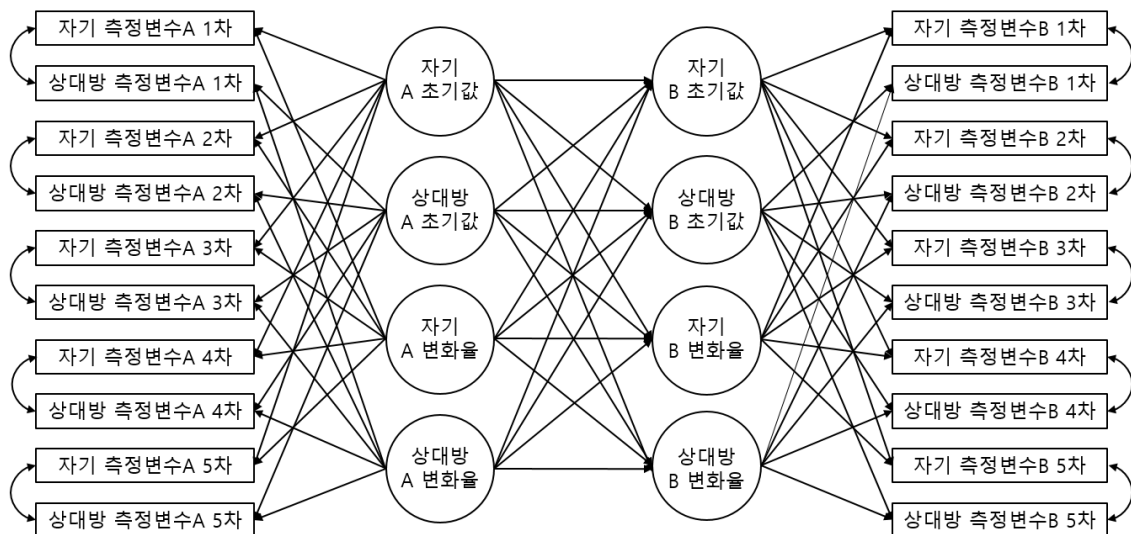
한편 종단자료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잠재성장모형을 종단 짝 자료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은 이자성장모형(Dyadic Growth Model: DGM)으로 분석할 수 있다(Kashy et al. 2008; Peugh et al. 2013). DGM에서는 자기의 측정변수와 상대방의 측정변수 각각에 대해 잠재성장모형의 성장요인(초기값 요인과 변화율 요인)을 설정한다. 각자의 성장요인은 각자의 측정변수의 변화 형태를 결정하며 동시에 자신의 측정변수들 사이의 의존성을 설명한다. DGM의 핵심은 자기의

성장요인과 상대방의 성장요인들 사이에 상관이 허용되고 동시에 같은 시점의 자기 측정변수와 상대방 측정변수의 설명오차 사이에도 상관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성장요인들 사이에 허용된 상관은 자기와 상대방의 측정변수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데 이 성장요인들의 관련성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상호의존성은 설명오차들 사이에 허용된 상관에 의해 설명된다(Kashy et al. 2008). DGM은 이주연·정혜정(2015)이 사용했던 평행 과정 성장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후자가 한 주체에 대해 측정한 두 변수 각각의 성장요인을 설정하고 이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추정한다면, 전자는 한 변수의 성장요인을 짝을 이루는 두 주체 각각에 대해 설정하고 이 요인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련성을 추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DGM에 의해 설정된 짝 자료의 성장요인 세트가 둘 이상인 경우, 즉 두 변수 이상의 이자 성장요인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에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여 한 변수의 이자 성장요인들로 다른 변수의 이자 성장요인들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관계 만족의 변화를 DGM으로 표현한다면 남편의 관계 만족의 성장요인과 아내의 관계 만족의 성장요인을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 부부의 우울 변화의 DGM으로 남편의 우울 성장요인과 아내의 우울 성장요인을 설정할 수 있다.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을 이 성장요인들에 적용한다면, 관계 만족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이자 성장요인이 우울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이자 성장요인에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그림 1>(b)의 APIM과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은 DGM으로 추정된 두 변수의 이자 성장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APIM의 상호의존적 인과관계로 설정한 모형을 표현한 것이다. 이 모형은 DGM과 APIM을 결합함으로써 두 변수의 종단적 변화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짝을 이루고 있는 쌍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설명하며 여기에서는 이를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Dyadic Growth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DG-APIM)으로 명명하겠다.

노년기 부부들의 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우울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과 부부의 상호작용의 관점을 반영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 만족과 우울의 성장 모형을 검토하고 이 성장모형을 구성하는 성장요인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장에서 소개한 짝 자료에 대한 성장모형인 DGM과 상호의존적 인과관계 모형인 APIM을 결합함으로써 성장요인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모형화하는 DG-APIM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5차례에 걸쳐 수집된 대규모 종단 짝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 및 우울의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각각 DGM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 성장요인이 우울 성장요인을 예측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나타내는지 DG-API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3〉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DG-APIM)

각 이자 성장요인들 사이의 공분산은 그림에서 생략하였음.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6부터 2014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고령화패널의 자료이다. 고령화패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 소득 수준과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고령화 가구의 삶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패널

조사이다. 전국 단위로 인원을 표집하기 때문에 폭넓은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른 표본의 대표성이 인정되므로 연구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용이하다. 또한 가구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고령층 가구 내에서의 부부관계와 우울증에 관한 종단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고령화패널은 고령화 가구들을 2006년부터 2년을 주기로 하여 현재까지 총 6차례(2006, 2008, 2010, 2012, 2014, 2016)에 걸쳐 추적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 시기까지 공개된 5차(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06년을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55세 이상인 부부로 한정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총 가구 수는 2,059 가구, 총 인원은 4,118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노년기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을 평가하는 1 문항에 대한 응답이 사용되었다. 응답은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상 100점에 해당하는 값을 10점이 되도록 변환한 값이 사용되었다.

2) 노년기 우울

고령화패널에서 사용한 우울 문항은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인 CES-D(Radloff 1977)의 단축형 10 문항(CES-D10)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모든 측정시점에서 내용의 변동이 없었던 7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사용되었다. CES-D10은 합산점수를 사용하여 우울수준을 판별하며, 합산점수의 크론바하 알파는 .86에서 .91 사이로 알려져 있다(송이은·김진영 2009; 서국희 외 1998). 각 문항은 일주일 동안 문항 내용에 관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1점)에서 항상 들었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두 문항은 역 코딩하였으며 7 문항의 합산점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7 문항 총점의 각 차수별 크론바하 알파는 0.709에서 0.759 사이였다.

3.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은 부부관계 만족의 성장모형과 우울의 성장모형을 설정하는 단계와 부부관계 만족의 성장요인으로 우울의 성장요인들을 예측하는 모형을 확인하는 단계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패널자료의 첫 측정 시점의 연령이 개인마다 다른 경우 LGM을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변화곡선을 추정할 때는, 표본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수행하거나 연령으로 절편과 기울기 요인을 예측하는 모형을 사용하며, 더 바람직하게는 성장요인을 정의하는 모수가 각 개인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연령을 정의변수(definition variable)로 사용하는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Mehta & West 2000). 이는 결혼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변화곡선을 연령 또는 결혼 기간의 함수로 추정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료가 수집된 기간 동안의 각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의 전반적인 수준과 변화율에서의 차이와 우울의 전반적인 수준과 변화율에서의 차이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결혼 기간을 고려한 절차들을 적용하지 않았다.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변화의 성장모형은 선형 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각 부부의 응답 기간 8년간의 변화 궤적의 형태를 선형으로 단순하게 기술하기 위한 것이며, 자료에 포함된 전체 연령 범위의 변화 형태가 선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LGM에서는 절편과 기울기의 개인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절편과 기울기의 회귀직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때 구성되는 전 연령 범위의 평균적인 변화 형태는 선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단순하면서도 해석이 용이한 선형 성장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절편 성장요인에는 모든 시점의 측정변수에 요인부하량 1이 부여되었고, 변화율 성장요인에는 1차 시점에서 5차 시점까지 각각 -2, -1, 0, 1, 2의 요인부하량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편요인은 3차 시점의 예측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 3차 시점은 연구기간의 중간지점으로 예측변수(시간)의 평균이며 선형 회귀모형의 예측변수 평균에서의 예측값은 곧 결과변수의 평균과 같다. 따라서 3차 시점의 예측값

은 전체 기간의 평균으로 해석된다. 변화율의 성장요인은 2년 사이의 변화의 크기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선형 변화모형의 절편요인은 각 부부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8년 동안의 부부관계만족도 및 우울의 평균 수준으로, 변화율 요인은 해당 기간 동안의 2년 단위 변화율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시간 척도의 설정을 통해 관계 만족의 성장요인으로 우울의 성장요인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절편요인의 효과를 좀 더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부관계만족도의 성장요인과 우울의 성장요인은 각각 상호관련성을 갖는 남편과 아내의 변화 궤적을 나타내는 이자성장모형(DGM)으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DG-APIM)을 이용하여 부부의 관계만족도 성장요인과 우울 성장요인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만족의 절편(평균)요인과 변화율(기울기)요인이 각각 남편과 아내의 우울의 평균요인과 기울기요인을 설명하며, 관계 만족의 각 성장요인은 APIM에서와 같이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가진다. 모든 분석은 Mplus 7.4(Muthen & Muthen 2012)로 수행되었으며,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Newman 2003). DG-APIM의 분석에 사용된 Mplus 명령문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 및 기술 통계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편의 연령대는 65세에서 74세 사이(49.2%)가 가장 많았으며 아내의 연령대는 55세에서 64세 사이(52.5%)가 가장 많았다. 학력의 경우 아내와 남편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각각 46.1%, 69.0%로 가장 높았다. 남편은 전체의 45.2%, 아내는 전체의 63.3%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1차에서 5차까지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이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례 수 및 백분율

요인	변수	구분	사례 수(백분율)	
			남편	아내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령	55 세 ~ 64 세	622(30.2)	1082(52.5)
		65 세 ~ 74 세	1013(49.2)	787(38.2)
		75 세 ~ 84 세	375(18.2)	183(8.9)
		85 세 이상	49(2.4)	7(0.3)
	학력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949(46.1)	1421(69.0)
		중학교 졸업	342(16.6)	324(15.7)
		고등학교 졸업	525(25.5)	253(12.3)
		대학교 졸업 이상	242(11.8)	60(2.9)
		모르겠음	1(0.0)	1(0.0)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상태	실업자	931(45.2)	1304(63.3)
		취업자	426(20.7)	315(15.3)
		모르겠음	702(34.1)	440(21.4)

2. 모형 적합도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각각에 대한 DGM의 모형 적합도 지표들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두 모형 모두 CFI와 TLI가 .95 이상, RMSEA는 .06 이하, SRMR은 .08 이하로 좋은 적합도(Hu & Bentler 1999)를 보여 각 모형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종단적 변화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만족도의 DGM의 성장요인들이 우울의 DGM의 성장요인들을 설명하는 DG-APIM 역시 모든 적합도 지표에서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여, 8년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족도의 선형적 변화와 해당 기간의 이들의 우울의 선형적 변화의 관련성이 DG-APIM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성장모형						
관계만족도 DGM	117.708***	36	0.984	0.980	0.033	0.044
우울 DGM	266.065***	36	0.968	0.960	0.056	0.052
구조모형	123123***					
DG-APIM	607.993***	156	0.966	0.958	0.038	0.039

주: DGM: 이자성장모형, DG-APIM: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 $p < .05$, ** $p < .01$, *** $p < .001$

2.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값

부부관계만족도의 선형 DGM의 남편과 아내의 성장요인들의 평균과 분산 및 공분산의 추정값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평균적으로 볼 때 패널자료가 수집된 8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들의 부부관계만족도의 평균(6.765)은 아내들의 평균(6.361)보다 높았다($\Delta\chi^2(1)=333.7$, $p < .001$). 같은 기간 부부관계만족도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남편(-0.186)이 아내(-0.128)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1)=19.9$, $p < .001$). 남편과 아내에서 모두 관계만족도의 평균에서 유의미한 개인차(남편의 분산: 1.099, 아내의 분산: 1.284)가 발견되었으며, 관계만족도의 변화율에서도 유의미한 개인차(남편의 분산: 0.045, 아내의 분산: 0.064)가 나타났다. 남편의 평균요인과 변화율 요인은 상관(공분산=0.001, $r=.003$) 아내의 평균요인과 변화율 요인은 부적 상관(공분산=-0.044, $r=-.152$)을 보였다. 남편과 아내의 평균요인들 사이의 상관(공분산=1.043, $r=.878$)과 변화율 요인들 사이의 상관(공분산=0.031, $r=.575$)은 모두 높게 나타나 부부 사이의 관계만족도 평균과 변화율이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다.

<표 4>는 선형 DGM을 통해 얻은 노년기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우울 성장요인들의 평균과 분산 및 공분산의 추정값이다. 평균적으로 8년 동안의 남편들의 우울 평균(14.512)은 아내들의 우울 평균(14.921)보다 낮았으나($\Delta\chi^2(1)=46.0$, $p < .001$), 같은 기간 우울의 증가율도 남편들(0.268)이 아내들(0.165)보다 더 높았

다($\Delta\chi^2(1)=12.6, p<.001$). 남편과 아내 모두 우울의 평균에서 유의미한 개인차(남편의 분산: 9.076, 아내의 분산: 9.300)를 보였으며 우울의 변화율에서도 유의미한 개인차(남편의 분산: 0.622, 아내의 분산: 0.439)를 보였다. 남편의 평균요인과 변화율 요인 사이의 상관(공분산=0.719, $r=.303$)과 아내의 평균요인과 변화율 요인 사이의 상관(공분산=0.530, $r=.249$)은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여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우울의 평균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평균요인들 사이의 상관(공분산=7.166, $r=.780$)과 변화율 요인들 사이의 상관(공분산=0.405, $r=.774$) 역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부부관계만족도의 성장요인 모수 추정값

구분		평균	표준 오차	분산 및 공분산			
				남편		아내	
				평균요인	변화율 요인	평균요인	변화율 요인
남편 (DGM)	평균요인	6.765***	0.029	1.099***			
	변화율 요인	-0.186***	0.012	0.001	0.045***		
아내 (DGM)	평균요인	6.361***	0.031	1.043***	0.005	1.284***	
	변화율 요인	-0.128***	0.013	-0.002	0.031**	-0.044*	0.064***

주: DGM: 이자성장모형

* $p<.05$, ** $p<.01$, *** $p<.001$

<표 4> 우울의 성장요인 모수 추정값

구분		추정치	표준 오차	분산 및 공분산			
				남편		아내	
				평균요인	변화율 요인	평균요인	변화율 요인
남편 (DGM)	평균요인	14.512***	0.077	9.076***			
	변화율 요인	0.268***	0.031	0.719***	0.622***		
아내 (DGM)	평균요인	14.921***	0.077	7.166***	0.774***	9.300***	
	변화율 요인	0.165***	0.029	0.568***	0.405***	0.503***	0.439***

주: DGM: 이자성장모형

* $p<.05$, ** $p<.01$, *** $p<.001$

4.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값

부부관계만족도의 DGM의 성장요인들이 우울의 DGM의 성장요인들을 설명하는 DG-APIM의 성장요인 간 경로계수들의 추정값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하에 제시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서로에 대한 공변수로서 동시에 추정되었기 때문에 각각 상대방 효과와 자기효과가 통제되었을 때의 부분 효과를 의미한다. 남편의 우울 평균은 자신의 관계만족도 평균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의 관계만족도 평균에 의해 설명되는 상대방 효과를 보였다. 조사 기간 동안의 관계만족도 평균이 동일한 수준의 남편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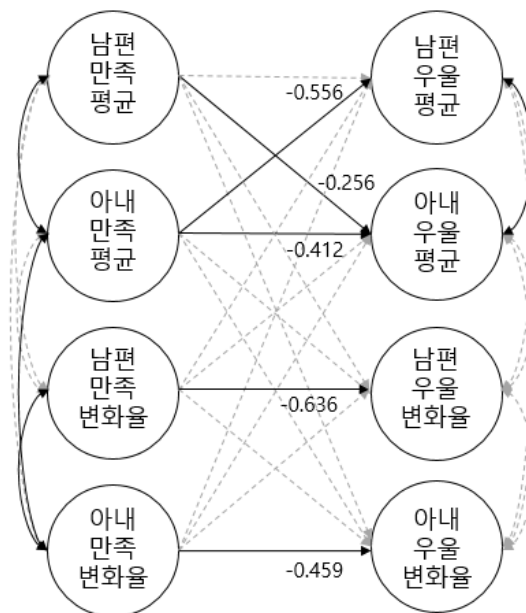
<표 5>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만족 성장요인과 우울 성장요인 사이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남편 관계 만족(I) → 남편 우울(I)	-0.316	0.330	-0.110
아내 관계 만족(I) → 남편 우울(I)	-1.475***	0.322	-0.556***
남편 관계 만족(S) → 남편 우울(I)	-0.909	0.497	-0.065
아내 관계 만족(S) → 남편 우울(I)	-1.735	1.148	-0.150
남편 관계 만족(I) → 아내 우울(I)	-0.742*	0.318	-0.256*
아내 관계 만족(I) → 아내 우울(I)	-1.105***	0.309	-0.412***
남편 관계 만족(S) → 아내 우울(I)	-1.137	1.302	-0.081
아내 관계 만족(S) → 아내 우울(I)	-1.238	1.091	-0.106
남편 관계 만족(I) → 남편 우울(S)	-0.028	0.188	-0.037
아내 관계 만족(I) → 남편 우울(S)	-0.140	0.183	-0.200
남편 관계 만족(S) → 남편 우울(S)	-2.330**	0.902	-0.636**
아내 관계 만족(S) → 남편 우울(S)	-0.905	0.679	-0.298
남편 관계 만족(I) → 아내 우울(S)	0.031	0.154	0.048
아내 관계 만족(I) → 아내 우울(S)	-0.126	0.150	-0.214
남편 관계 만족(S) → 아내 우울(S)	-1.073	0.667	-0.348
아내 관계 만족(S) → 아내 우울(S)	-1.176*	0.554	-0.459*

주: I=평균요인, S=변화율 요인

* $p < .05$, ** $p < .01$, *** $p < .001$

대해, 아내의 관계만족도의 평균이 높을수록 자신의 우울 평균이 낮았다($b = -1.475$). 이에 반해 아내의 우울 평균은 자신의 관계만족도 평균에 의한 자기효과와 남편의 관계만족도 평균에 의한 상대방 효과를 모두 보였다. 아내의 평균 우울은 자신의 평균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평균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효과($b = -1.105$)가 상대방 효과($b = -0.742$)보다 컸다. 남편과 아내의 평균 우울은 자기와 상대방의 관계만족도의 변화율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림 4〉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에 대한 DG-APIM의 분석결과

남편과 아내 각각에서 관계만족도의 변화율은 우울의 변화율을 설명하는 자기효과를 보였으나 상대방의 우울의 변화율을 설명하는 상대방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상대방의 관계만족도 변화율을 통제하였을 때,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관계만족도 변화율이 클수록 낮은 우울 변화율을 보였다(남편: $b = -2.330$, 아내: $b = -1.176$).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부부관계만족도 감소 속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우울의 증가 속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의 변화율이 동일한 부부에 대해, 배우자의 관계만족도 변화율은 자신의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의 우울 변화율은 자기와 상대방의 관계만족도의 평균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림 4〉는 DG-APIM

의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실선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가 경험하는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변화 궤적과 이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확인하고,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관계 만족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둘의 종단적 변화 사이의 관련성과 부부가 갖는 상호의존성이 모두 고려된 접근이 적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단위의 관계 만족과 우울의 변화 궤적 사이의 관련성을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령화패널에 포함된 2,049 쌍의 노년기 부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단위로 5차에 걸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이자 관계 분석의 대표적인 모형인 APIM과 짝 자료의 종단 변화 분석모형인 이자성장모형을 혼합한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DG-APIM)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가 보고하는 부부관계 만족은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으며 개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해당 기간 동안의 부부관계만족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조사 대상들의 부부관계만족도의 전반적 수준은 남편의 평균이 아내보다 높았지만 감소하는 속도도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다른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박병선·배성우 2011) 및 여성가족패널(김미령 2009)의 결과와도 일치했다. 한편 일부 국외 연구에서는 남편보다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더 감소하거나 변화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Kurdek 2005; Lawrence et al. 2008)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부부, 특히 노년기 부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지만, 사회적 변화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편들의 가정 내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남편들이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박병선·배성우 2011). 특히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과 같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주 소득원이었던 남편의 은퇴가 가정의 소득수준의 감소와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김정석·최형주 2011; 윤지은·전혜정 2009). 그러나 이러한 변화 양상은 평균적인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관계 만족의 전반적 수준과 변화율에서 유의미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관계 만족의 전반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의 관계 만족의 전반적 수준이 높았으며, 변화율에서도 이와 같은 부부간 정적 상관이 나타나 부부의 관계만족도가 서로 동조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둘째, 조사 기간 동안 노년기 부부가 보고한 우울의 정도는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유의미한 개인차를 보였다. 남편과 아내 각자가 보고한 우울증상은 평균적으로 선형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우울증상의 전반적 수준은 남편이 아내보다 낮았지만 우울이 증가하는 속도는 남편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국의 대규모 장기 종단 연구(BLSA, Sutin et al. 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세 연구(김봉균 외 2014; 이주연·정혜정 2015; 전해숙·강상경 2009)의 결과와는 달랐다. 이 연구들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연령대와 선정된 조사 시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조사 시점이 지남에 따라 우울 점수의 평균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령대(55세~64세, 65세~74세, 75세 이상)를 구분하여 우울 점수의 평균을 보고한 이주연·정혜정(2015)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관적으로 우울 점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를 이 세 연령대의 세대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면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결과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우울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응답자들의 응답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학습효과나 반응편파의 영향 등의 패널자료 수집 절차에서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화패널자료의 우울 변화를 보고한 이현주(2013)의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1차에서 3차)이 진행되면서 발견되는 우울 점수의 증가와 연령대(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가 높아질수록 우울 점수의 평균이 높아지는 결과가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 걸쳐 평균 우울 점수가 증가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의 상승은 노년기에 겪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과 부정적인 요인에 둔감해지는 능력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현주 2013; Green & Benzeval 2011; Stordal et al. 2001). 본 연구의 조사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보다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우울의 수준은 더 낮은 데 반해 우울의 변화율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관계만족도의 변화에서와 유사한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우울이 아내의 우울보다 낮은 편이지만 노년기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내보다 남편에게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송예현 2001; 송지은·Marks 2006; Christ et al. 2007). 우울증상에서의 이러한 변화 형태 역시 평균적인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우울증상의 전반적 수준과 변화율에서도 개인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 만족에서와는 달리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전반적인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속도도 큰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남편과 아내 상호 간에 우울의 전반적인 수준 및 증가 속도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부부 간의 우울의 수준과 변화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셋째, 이자성장 APIM을 적용하여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의 변화 궤적과 노년기 부부의 우울의 변화 궤적의 이자적 상호의존성을 확인한 결과, 남편의 평균 우울 수준은 아내의 관계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낮았지만(상대방 효과) 자신의 관계만족도 수준에 의해서는 추가적인 영향(자기효과)이 확인되지 않았고, 아내의 평균 우울 수준은 자기와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또한 남편과 아내의 우울 변화율은 자신의 부부관계만족도의 변화율과 부적 자기효과를 보였다. 즉, 남편과 아내의 우울 증가율은 자신의 관계만족도의 감소율이 클수록 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기 부부의 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와 평균 수준이 우울의 종단적 변화와 평균 수준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 만족 또는 부부관계 만족이 부부 각자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우울의 결혼 불화 가설이 종단적 변화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의 관계 만족의 평균 수준이 배우자의 평균적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 결과는, 적어도 노년기 부부의 관계 만족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부부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노년기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느끼는 관계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배우자가 느끼는 관계에 대한 만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어느 한 쪽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 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권오균·허준수 2010).

본 연구는 부부 모두에게서 수집한 종단 자료를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 덜 알려진 짝을 이룬 쌍에 대한 성장모형인 DGM을 소개하고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이들의 구조적 관계 모형(DG-APIM)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체감하는 부부관계만족도가 서로의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여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이론적 모형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째, 분석에 사용한 부부관계만족도 점수가 단일문항에 의해 측정되어 실제 부부관계 만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특히 부부관계 만족이 부부 간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 성역할 태도와 같은 부부관계의 하위 요인(이윤로·유시순 2004)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건강상태,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은 개인과 배우자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하여 신체적 건강이나 인지 기능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정석·최형주 2011; 이현주 외 2008; 주수산나 등 2013; 허준수·유수현 2002). 셋째, 짝 자료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분석 절차로 APIM 외의 다른 모형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APIM과 함께 짝 자료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공통운명모형(Common Fate Model: CFM)은 남편과 아내의 경험 또는 반응 사이의 관련성을 제3의 잠재변수(공통운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Kenny et al.

2006; Ledermann & Kenny 2012). 종단 자료의 경우 CFM을 LGM과 결합한 공통 운명성장모형(Common Fate Growth Model, Ledermann & Macho 2014)을 이용하여 종단 짝 자료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한계, 모형의 복잡성, 지면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논의와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연구에서는 더 나은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는 척도와 더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자료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대안적 모형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균·허준수. 201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7: 7-30.
-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1.
- 김봉균·하연주·최송식. 2014.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종단적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4(1): 115-132.
- 김성일·정용철. 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3: 5-27.
- 김정석·최형주. 2011. “노년부부가구 남편과 부인의 부부관계만족도.” 《한국인구학》 34(2): 1-15.
- 김효정·고선규·권정혜. 2008.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73-89.
- 박미진. 2007.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97-211.
- 박병선·배성우. 2011. “부부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성별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4(단일호): 41-76.
- 박영화·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

- 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서국희·조두영·류인균·연병길·최인근·조맹제. 1998. "한국 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과 위험인자." 《노인병지》 2(1): 49-60.
- 송예현. 2001.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D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0(4): 473-483.
- 송이은·김진영. 2012.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2(1): 228-259.
- 송지은·Marks, N. F. 2007. "결혼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 30(1): 25-47.
- 여성가족부. 2013.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방안." 여성가족부.
- 윤지은·전혜정. 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9(2): 743-759.
- 이미숙. 2012. "노인인구의 결혼관계와 우울증세: 결혼지위와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4): 176-204.
- 이미애. 2011.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요인과 가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2(4): 623-635.
- 이윤로·유시순. 2004.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1): 1-21.
- 이주연·정혜정. 2015. "노년기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종단적 상호관계-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575-593.
- 이현주. 2013. "노년기 우울의 종단적 변화: 연령집단별 차이와 위험요인." 《노인복지연구》 61(단일호): 291-318.
- 이현주·강상경·이준영. 2008. "노인우울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4): 1129-1145.
- 전해숙·강상경. 2009. "노년기 우울궤적의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한국노년학》 29(4): 1611-1628.
- 정은주·최기홍. 2013.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성별과 결혼상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7-31.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1): 89-106.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5.

- 주수산나·전혜정·채혜원. 2013. “부부관계만족도의 종단적 상호영향: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과 문화》 25(4): 91-119.
- 통계청. 2010. “2010년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 허준수·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22.
- Beach, S.R.H. 2001.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Depression: A Scientific Foundation for Clinical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ach, S.R.H., J. Katz, S. Kim, and G.H. Brody. 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each, S.R.H., E.E. Sandeen, and K.D. O’Leary. 1990. *Depression in Marriage: A Model for Etiology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Blazer, D., B. Burchett, C. Service, and L.K. George. 1991. “The Association of Age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 An Epidemiologic Explora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 M210-M215.
- Bollen, K.A. and P.J. Curran.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ookwala, J. and J. Jacobs. 2004. “Age, Marital Processes, and Depressed Affect.” *The Gerontologist* 44(3): 38-338.
- Bradbury, T.N., F.D. Fincham, and S.R. Beac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rown, G.W., L. Lemyre, and A. Bifulco. 1992. “Social Factors and Recovery from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A Test of Specific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1: 44-54.
- Burr, W.R. 1975. “Some Notes on Future Theorizing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5(2): 204-219.
- Christ, S.L., D.J. Lee, L.E. Fleming, W.G. LeBlanc, K.L. Arheart, K. Chung-Bridges, and K.E. McCollister. 2007. “Employment and Occupation Effects

- on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mericans: Does Working Past Age 65 Protect against Depressio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6): 399-403.
- Connidis, I.A. 2010. *Family Ties and Aging*.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Cook, W.L. and D.A. Kenny.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ulp, L.N. and S.R.H. Beach. 1998. "Marriag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and Bases of Self-esteem Differ by Gend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647-663.
- Davila, J., T.N. Bradbury, C.L. Cohan, and S. Tochluk. 1997. "Marit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or a Stress Generatio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849-861.
- Duvall, E.M. 1971. *Family Development*. 4th edition. Philadelphia: J.B. Lippincott and Company.
- Eaton, W.W., K. Neufeld, L.S. Chen, and G. Cai. 2000. "A Comparison of Self-report and Clinical Diagnostic Interviews for Depression: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and Schedules for Clinical Assessment in Neuropsychiatry in the Baltimor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Follow-up."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3): 217-222.
- Fincham, F.D., S.R.H. Beach, G.T. Harold, and L.N. Osborne. 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8(5): 351-357.
- Foley, S.H., B.J. Rounsaville, M.M. Weissman, D. Sholomaskas, and E. Chevron. 1989. "Individual Versus Conjoint Interpersonal Therapy for Depressed Patients with Marital Disputes."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iatry* 10: 29-42.
- Gorchoff, S.M., O.P. John, and R. Helson. 2008. "Contextualiz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Middle Age: An 18-year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Science* 19(11): 1194-1200.

- Green, M.J. and M. Benzeval. 2011. "Ageing, Social Class and Common Mental Disorders: Longitudinal Evidence from Three Cohorts in the West of Scotland." *Psychological Medicine* 41: 565-574.
- Henry, N.J., C.A. Berg, T.W. Smith, and P. Florsheim. 2007.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of Marital Interac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aged and Older Couples." *Psychology and Aging* 22(3): 428.
- Hollist, C.S., R. Miller, O.G. Falceto, and C.L.C. Fernandes. 200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 Replication of the Marital Discord Model in a Latino Sample." *Family Process* 46(4): 485-498.
- Homish, G.G. and K.E. Leonard. 2007. "The Drinking Partner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Discrepa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1): 43-51.
- Hu, L.T. and P.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shy, D.A., M.B. Donnellan, S.A. Burt, and M. McGue. 2008. "Growth Curve Models for Indistinguishable Dyads Using Multilevel Modeling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Case of Adolescent Twins' Conflict with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4(2): 316.
- Kenny, D.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y, D.A., D.A. Kashy, and W.L. Cook.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urdek, L.A. 2005.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Early in Marriage: A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68-84.
- Lavner, J.A. and T.N. Bradbury. 2010.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171-1187.
- Lawrence, E., A. Pederson, M. Bunde, R.A. Barry, R.L. Brock, E. Fazio, L. Mulryan,

- S. Hunt, L. Madsen, and S. Dzankovic. 2008. "Objective Ratings of Relationship Skills Across Multiple Domain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Trajectori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3): 445-466.
- Ledermann, T. and D.A. Kenny. 2012. "The Common Fate Model for Dyadic Data: Variations of a Theoretically Important but Underutilized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1): 140-148.
- Ledermann, T. and S. Macho. 2014. "Analyzing Change at the Dyadic Level: The Common Fate Growth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2): 204-213.
- Lupri, E. and J. Frideres. 1981. "The Quality of Marriage and the Passage of Time: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6(3): 283-305.
- Mehta, P.D. and S.G. West. 2000. "Putting the Individual Back into Individual Growth Curves." *Psychological Methods* 5: 23-43.
- Murali, V. and F. Oyebode. 2004. "Poverty, Social Inequality and Mental Health."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0: 216-224.
- Muthen, L.K. and B. Muthen. 2012. *Mplus Version 7 user's guide*.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Newman, D.A. 2003. "Longitudinal Modeling with Randomly and Systematically Missing Data: A Simulation of Ad Hoc, Maximum Likelihood, and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6(3): 328-362.
- O'Leary, D.A., L.P. Riso, and S.R. Beach. 1990. "Attributions about the Marital Discord/Depression Link and Therapy Outcome." *Behavior Therapy* 21: 413-422.
- Peugh, J.L., D. DiLillo, and J. Panuzio. 2013. "Analyzing Mixed-dyadic Data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2): 314-337.
- Preacher, K.J., A.L. Wichman, R.C. MacCallum, and N.E. Briggs. 2008.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Oaks, CA: Sage.
- Proulx, C.M., H.M. Helms, and C. Buehler. 2007.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 Well Being: A Meta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576-593.
-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ach, A.J., L.P. Frazier, and S.R. Bowden.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537-546.
- Rollins, B.C. and K.L. Cannon. 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2): 271-282.
- Stordal, E., Bjartveit M. Krüger, N.H. Dahl, Ø. Krüger, A. Mykletun, and A.A. Dahl. 2001. “Depression in Relation to Age and Gender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Nord Trøndelag Health Study(HUNT).”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3): 210-216.
- Sutin, A.R., A. Terracciano, Y. Milaneschi, Y. An, L. Ferrucci, and A.B. Zonderman. 2013. “The Trajectory of Depressive Symptoms Cross the Adult Life Span.” *JAMA Psychiatry* 70(8): 803 - 811.
- Townsend, A., B. Miller, and S. Guo. 2001.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Middle-aged and Older Married Couples: A Dyadic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56: 352-364.
- Vaillant, C.O. and G.E. Vaillant. 1993. “Is the U-curve of Marital Satisfaction an Illusion? A 40-year Stud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230-239.
- Walker, R.B. and M.A. Luszcz. 2009. “The Health and Relationship Dynamics of Late-life Coupl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eing and Society* 29(3): 455-480.
- Whisman, M.A.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In S.R.H. Beach(ed.),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Depression: A Scientific Foundation for Clinical Practice* 3-2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hisman, M.A. and M.L. Bruce. 1999. "Marital Distress and Incidence of Major Depressive Episode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674-67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World Health Organization*.

<접수 2017/09/03, 수정 2017/10/10, 게재확정 2017/11/03>

부록 1.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분석에 사용된 Mplus 명령문

DATA: FILE IS dyadic_data_both.dat;

VARIABLE: NAMES ARE v1-v212;

USEVARIABLE = v34-v38 !남편 관계 만족
v133-v137 !아내 관계 만족
deph1-deph5 !남편 우울
depw1-depw5; !아내 우울

MISSING = all(-9);

ANALYSIS: ESTIMATOR=ML;

DEFINE:

deph1 = sum(v41-v48); !남편 우울 합산 점수 정의
deph2 = sum(v51-v58);
deph3 = sum(v61-v68);
deph4 = sum(v71-v78);
deph5 = sum(v81-v88);

depw1 = sum(v140-v147); !아내 우울 합산 점수 정의
depw2 = sum(v150-v157);
depw3 = sum(v160-v167);
depw4 = sum(v170-v177);
depw5 = sum(v180-v187);

MODEL:

!관계 만족 이자성장모형(DGM)

ISah SSah | v34@-2 v35@-1 v36@0 v37@1 v38@2; !남편 성장요인 설정

ISaw SSaw | v133@-2 v134@-1 v135@0 v136@1 v137@2; !아내 성장요인 설정
v34-v38 PWITH v133-v137; !오차공분산 설정

!우울 이자성장모형(DGM)

IDeph SDeph | deph1@-2 deph2@-1 deph3@0 deph4@1 deph5@2; !남편

IDepw SDepw | depw1@-2 depw2@-1 depw3@0 depw4@1 depw5@2; !아내
deph1-deph5 PWITH depw1-depw5; !오차공분산

!성장요인의 구조모형(APIM)

IDeph IDepw SDeph SDepw ON ISah ISaw SSah SSaw;

OUTPUT: STDYX;

부록 2.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1-5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000																			
2	0.374	1.000																		
3	0.288	0.416	1.000																	
4	0.287	0.357	0.470	1.000																
5	0.279	0.379	0.375	0.437	1.000															
6	0.564	0.330	0.267	0.248	0.270	1.000														
7	0.285	0.546	0.385	0.299	0.325	0.378	1.000													
8	0.266	0.343	0.591	0.415	0.323	0.333	0.461	1.000												
9	0.283	0.334	0.430	0.586	0.388	0.287	0.363	0.455	1.000											
10	0.245	0.351	0.355	0.398	0.628	0.281	0.347	0.358	0.441	1.000										
11	-0.282	-0.247	-0.206	-0.188	-0.224	-0.300	-0.226	-0.204	-0.273	-0.206	1.000									
12	-0.214	-0.270	-0.226	-0.253	-0.214	-0.239	-0.289	-0.216	-0.292	-0.241	0.482	1.000								
13	-0.175	-0.170	-0.226	-0.275	-0.333	-0.198	-0.220	-0.245	-0.328	-0.337	0.362	0.505	1.000							
14	-0.206	-0.199	-0.241	-0.346	-0.343	-0.219	-0.217	-0.238	-0.364	-0.363	0.385	0.479	0.589	1.000						
15	-0.206	-0.239	-0.269	-0.353	-0.387	-0.213	-0.244	-0.283	-0.357	-0.383	0.292	0.375	0.407	0.555	1.000					
16	-0.279	-0.257	-0.203	-0.195	-0.267	-0.296	-0.248	-0.202	-0.245	-0.246	0.508	0.375	0.288	0.295	0.250	1.000				
17	-0.209	-0.292	-0.235	-0.250	-0.298	-0.196	-0.312	-0.241	-0.274	-0.291	0.326	0.606	0.394	0.360	0.323	0.467	1.000			
18	-0.190	-0.205	-0.234	-0.256	-0.349	-0.192	-0.256	-0.275	-0.290	-0.310	0.244	0.374	0.649	0.474	0.338	0.405	0.491	1.000		
19	-0.186	-0.233	-0.230	-0.325	-0.332	-0.180	-0.225	-0.228	-0.341	-0.320	0.242	0.407	0.449	0.628	0.431	0.385	0.485	0.562	1.000	
20	-0.232	-0.255	-0.242	-0.314	-0.379	-0.188	-0.279	-0.254	-0.302	-0.384	0.252	0.338	0.336	0.458	0.687	0.339	0.426	0.420	0.538	1.000
<i>M</i>	7.249	6.858	6.690	6.527	6.362	6.721	6.371	6.342	6.129	6.095	13.846	14.338	14.942	14.903	14.780	14.284	15.203	15.253	15.106	15.204
<i>SD</i>	1.949	1.670	1.715	1.709	1.581	2.135	1.882	1.784	1.741	1.677	3.975	4.493	4.660	4.432	4.786	4.165	4.663	4.729	4.436	4.652

